

코로나19에... 사라지는 일자리, 쏟아지는 실직자

해고 근로자 몰리며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 청구 '복적' 광주 지역 2월 3641명 신청... 전년 동기보다 53% 급증 고용시장 공포 얼어붙어... 장기화 땀 '실업대란' 우려

"하루 아침에 문자메시지 한통으로 일 자리를 잃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신규 채용도 어려운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광주시 동구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 창구 앞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실직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들은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뒤 거주지별로 1번(남구, 서구 쌍촌동, 구례), 2번(북구 I 용봉동, 운암동 오지동 등), 3번(서구 I), 4번(동구, 나주, 담양, 장성), 5번(북구 II, 곡성)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렸다. 광주복지고용센터 앞에서 만난 김모(여·50)씨는 이달 초 3년 간 일한 식당에서 해고됐다.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종사자 등 전 분야를 망라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하루 벌여 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경기 침체에 일자리를 잃은 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주청 내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3641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한 실업급여는 244억 8130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업급여 신청자가 2372명(지급액 198억 1542만원)에 견줘 53.4%(1269명)나 급증했다. 실업급여액도 23.5%(46억 6588만 3000원) 증가했다.



지난 13일 광주시 동구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 등을 받기 위한 절차를 문의하려는 실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김씨는 "경기도 좋지 않은데 코로나19까지 겹쳐 함께 일하던 다른 종업원 2명과 그 만두게됐다"며 "사장이 며칠만 쉬라더니 문자메시지로 '미안하다'며 해고했다"고 했다.

이날 만난 실직자들 대부분이 경기 침체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며 고용센터를 찾았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이달도 비슷하다. 당장,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접수된 실업급여 신청자만 2308명(지급액 94억 418만 9000원). 지난해 같은 기간(1407명·59억 1059만 4000원)에 비해 64.0%(901명)나 폭증했다. 이들에게 지급한 실업급여도 59.1%(34억 9359만 5000원)나 뛰었다.

지역 내 음식점·여행사 등에서 일하던 해고된 실직자들이 많았다.

이날 만난 전모(여·32)씨도 최근 3년 넘게 다닌 여행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았다.

전씨는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 때도 무급급가를 가면서 약삭같이 버텼다"며 "올 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언제 다시 복직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있던 종업원을 내보내는 상황에서 새로운 직원을 구할 리 없다는 생각에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도 예전만 못하다.

올 들어 2월 말까지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8888명으로 지난해 9452명에서 5.9%(594명) 감소했다.

일자리를 찾아 나선 광주지역 구직 등록자도 2만 6479명으로 지난해 2만 9948명보다 13.1%(3469명) 줄어 들었다는 게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측 설명이다.

경제대 안팎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된 경우 자칫 소규모 영세 자영업을 중심으로 실업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

도 나오고 있다.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봐야 알 수 있지만 코로나 영향과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수급신청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경찰, S자 차로로 음주운전 골라낸다

검문식 대신 단속 방안 마련 실효성 여부는 아직 미지수

의심 차량을 골라내는 데 주력했다.

경찰이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을 대신할 음주 단속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검문식 음주단속 중단 이후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마련한 특별 방안이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1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주 단속 방식을 '일제 검문식'에서 '선택식'으로 변경한 뒤 급증하는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해 이른바 'S자형 음주단속'과 '좁게' 단속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S자형' 단속은 이른바 1개 차로로 S자 형태로 만들어 운전자들이 속도를 낮춰 S자 차로로 진입하도록 유도한 뒤 경찰을 배치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골라내는 방식이다.

차로 주행 방향을 따라 라바콘과 음주단속 입간판을 설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하는 이른바 '일자형' 음주단속을 대신한 것으로, S자 차로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음

주 운전으로 의심할만한 차량을 골라 선별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전략이다. 구간이 넓은 북부경찰이 시범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상무지구 등 유세가 주점 주변 도로에 대기하다가 음주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운전자가 차를 출발시키는 순간, 적절하는 '좁게' 단속도 시행중이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이같은 방식으로 5명의 음주운전자에 적발됐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간 발생한 음주 사고는 모두 6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30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승준 한국 들어오나...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입국 허가는 여전히 안갯속

정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작년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LA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유씨는 다시 비자발급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여지는 남아있다.

/연합뉴스

광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폭 강화

제한속도 모두 30km로 조정 무인 단속 장비도 집중 배치 '민식이법' 시행 앞서 대책 마련

취지에 맞춰 광주 시내 157개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30km로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통 소통 등을 이유로 통행속도를 50km 이내로 운영했던 간선도로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3곳의 통행속도는 모두 30km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 광주시는 통행속도가 하향 조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16·18일까지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 표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광주 송원초등학교 등 5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인근 구간의 통행속도를 기존 60km에서 50km로 조정하고, 보호구역 경계지역의 급감속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설치해 단계적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신호기를 추가 설치한다.

이번에 개장된 도로교통법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를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광주시는 시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간선도로에는 이미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 만큼, 경찰청이 선정한 17개 초등학교 26곳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올 상반기까지 신호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또 초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마친 뒤, 올 하반기부터 개선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416명 온라인으로 자진 신고

법무부는 지난 11일부터 이를 통한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 416명이 온라인으로 자진 신고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온라인 자진신고 제도는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동시에 이동 통선을 단속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도입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관광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시를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신고하고 출국 당일 공항·항만의 관서에서 심사를 받는다. 범죄 수배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기방문 비자(C-3)로 재입국할 기회를 줄 계획이다.

/연합뉴스

"누군가 내 주민번호 도용해 마스크 구입" ... 50대 여성 고소장

○...누군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스크를 구입했다는 50대 여성을 구인했다는 수사에 착수.

○...1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여·55)씨는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하는 요일에 약국을 찾아 마스크를 사려고 했지만 경북 한 지역에서 자신의 명

의로 누군가 마스크를 구매해버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

○...경찰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 A씨의 주민등록 정보로 마스크를 구입한 사람을 찾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개>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9타경 4141	1	순천시 중앙동길 163, 에이돌 [현황: 1동] 1층 101호 [종목: 용유아파트] 73.54㎡	아파트	66,000,000	
	2	순천시 안산길 5, 108동 7층 701호 [현황: 연향동 연향동빌딩(현신빌)] 36.0630㎡	아파트	80,000,000	
	3	순천시 해룡면 대석길 98, 204동 6층 608호 [청솔아파트] 56.40㎡	아파트	92,000,000	
	4	동소98, 203동 3층 301호 [청솔아파트] 56.40㎡	아파트	87,000,000	
2019타경 52096	1	순천시 연향동양상가길 80, 105동 9층 906호 [연향동 현대아파트] 84.865㎡	아파트	171,000,000	
	2	동소 2층 266.00㎡ [제1차] 17.2㎡	아파트	92,000,000	
2019타경 6413	1	구례군 산동면 위안길 595-1 152㎡	대	59,890,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	구례군 산동면 위안길 17 1층 66.00㎡	대	59,890,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9타경 5816	1	광양시 목곡면 선유리 산 1-1 4270㎡	임야	260,470,000	
	2	동소 산 4 12099㎡	임야	665,445,000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9타경 54214	1	광양시 진월면 양덕리 191-3 1511㎡ [조선옥지분2부의1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52,885,000	공유자우선매수권 제시1회에한함
	2	순천시 낙안면 내운리 산 47 35306㎡	임야	42,367,200	
2019타경 54399	1	광양시 목곡면 선유리 산 1-1 4270㎡	임야	42,367,200	
	2	동소 2층 266.00㎡ [제1차] 17.2㎡	아파트	92,000,000	
2018타경 9903	1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1124-1 2810.2㎡ 제1차지리시설	공장용지	1,485,130,100	일괄매각, 기계의기계기구는제외, 컨테이너매각제외
	2	고흥군 동강면 정정석동지리길 55 [메이들동] 55 [비록] 631.88㎡	공장	1,485,130,100	구포항, 목축의의기계기구는제외, 컨테이너매각제외
2018타경 53993	1	순천시 해룡면 여운로 1316-12 분포, 쓰레기처리시설 1층 961.2㎡ 2층 429㎡	근린시설	1,672,792,4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기계기구포함 [일련번호 2, 3, 5, 6, 8, 9소재물명], 제시외기계가구 2점매각제외
	2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806-5 7229㎡ 제시외 전지 등 135.8㎡, 기계기구목책참조 [물건번호: 컨테이너및목책, 폐기물매각제외, 연고미상표모(1기소재)]	공장용지	1,672,792,400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증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종료된 후 개찰을 위하여 최고가격을 명시한 봉투와 최저가격을 명시한 봉투를 함께 봉투에 넣고 봉투에 '입찰'이라고 적어야 하며, 봉투에 '입찰'이라고 적지 않은 봉투는 개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한 봉투는 개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한 봉투는 개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매각하기 및 대금납부

① 최고가격을 입찰한 봉투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에 매각하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대금지급기간이 경과하면 낙찰을 거부하여 합니다. 대금지급기간은 통상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간이 경과하면 낙찰을 거부하여 합니다. 단, 대금지급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에 낙찰을 거부하는 경우 낙찰을 거부하여 합니다.

③ 낙찰을 거부한 경우 낙찰을 거부한 날로부터 대금납부시 유예기간, 회차시 제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차당금, 가압류등은 승낙에 관계없이 명확적으로 소멸합니다. 소유권이전과 및 전대권이나 가압류 및 압류등을 유예하는 등 특별한 지장사항이 발생한 후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 국민주택채권발행은행을 기한한 상환서를 반환해 제출하면 인도가 가능합니다.

②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을 초과하여 매각을 거부하여 합니다. 단, 매각결정일 이후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을 초과하여 매각을 거부하여 합니다.

③ 매각결정일 이후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을 초과하여 매각을 거부하여 합니다.

④ 매각결정일 이후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을 초과하여 매각을 거부하여 합니다.

7. 주의사항

① 매각의 목적 또는 성격에 따라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납부금과 면적 주된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이나, 사업 자득신분을 가진 원주민이 있을 때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을 초과하여 매각을 거부하여 합니다.

③ 매각결정일 이후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을 초과하여 매각을 거부하여 합니다.

④ 매각결정일 이후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을 초과하여 매각을 거부하여 합니다.

⑤ 매각결정일 이후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을 초과하여 매각을 거부하여 합니다.

⑥ 매각결정일 이후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을 초과하여 매각을 거부하여 합니다.

⑦ 매각결정일 이후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을 초과하여 매각을 거부하여 합니다.

⑧ 매각결정일 이후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을 초과하여 매각을 거부하여 합니다.

⑨ 매각결정일 이후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을 초과하여 매각을 거부하여 합니다.

⑩ 매각결정일 이후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 이후에 매각결정일을 초과하여 매각을 거부하여 합니다.

2020.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오재홍